

라면 등 K-푸드 중국 수출 활성화 지원

- 식약처, 중국 정부와 제15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개최
- 국산 면류 제품의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중국 정부와 ‘제15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양국 식품 기준·규격 운영 기관인 ‘한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 간 양해각서에 따른 정기회의

** 참석 : (한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장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국내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규격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매년 양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주요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 ▲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PLS 제도 ▲물리적 재생원료(PET) 인정 절차 및 관리현황 등 식품 기준 관리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관리방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식약처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는 K-라면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라면 업계의 애로사항인 중국 면류의 수분함량 및 미생물 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산 라면 對중국 수출액(백만\$) : ('18) 93 → ('20) 149 → ('22) 189(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 ①건조하지 않은 숙면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 제외

②간장·된장 등 발효원료를 사용한 라면 스프는 세균수 기준 제외

참고로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김치, 냉동삼계탕 등의 대중국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등 K-푸드의 수출 활로를 넓히는데 다수의 성과를 도출했다.

< 그간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주요 성과 >

- 채소·과일이 첨가된 **영유아식품**에 대한 아질산염 기준 적용 제외('11년)
- **생막걸리**의 미생물과 주류의 망간 기준 삭제('13년)
- **설탕**의 미생물과 **초콜릿** 제품의 구리 기준 삭제('15년)
- **김치** 등에 대한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 및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완화('16년)
- **냉동 삼계탕** 등 가금육 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22년)
- **초고온살균우유** 기준 신설('23년 12월 행정예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산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기관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책임자	과 장	박종석 (043-719-2411)
		담당자	연구관	정지윤 (043-719-2421)

